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 January

주간 전남농업

VOL. 218

2019년
1월 넷째주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5 ~ 0도, 최고기온 : 4 ~ 7도)보다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0 ~ 2mm)보다 조금 적겠음

2. 주간 농사정보 6

- ▶ 화훼
- ▶ 특용작물
- ▶ 축산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0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4

- ▶ 김치수출 20% 증가, 김치수출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
- ▶ 2019년산 상주, 하동, 나주 배 호주 수출 가능!
- ▶ 인삼 수출 2억불 달성 머지않아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7

- ▶ 포도 재배하며 유기농 6차산업화 선도
- ▶ 전남농기원, 전남 쌀 명품화에 적극 나서
- ▶ 겨울철 논에 심는 감자, 온도와 환기 관리가 중요
- ▶ 소비자 평가 좋은 '우리 딸기' 보급 확대에 박차
- ▶ '팔잎' 속에 숨은 성분 '팔 못지 않네'
- ▶ 겨울나기 후 맥류 품질·생산성 높이는 비법은?
- ▶ “미세먼지 노출되면 가축도 아파요”
- ▶ 전남농기원, 절화수국 연중생산 기술 현장 평가 성료

6. 정책 동향 25

- ▶ 월동배추 수급안정 대책 추진
- ▶ 2019년도 청년 농촌보급자리 사업 추진
- ▶ ‘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
- ▶ 전남동물위생시험소, AI 유입 차단 방역 강화
- ▶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추진
- ▶ 전남농기원, 농업 현안과제 해결에 박차!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1

- ▶ 곡성군, 토란파이 지역명물로 발돋움
- ▶ 보성군, 딸기 세계가 인정한 맛!
- ▶ 보성군, 소형농기계 공급 확대...올해 512대 지원!
- ▶ 해남군, 해남배추 11,802톤 선제적 산지폐기
- ▶ 영암군,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8. 해외 농업정보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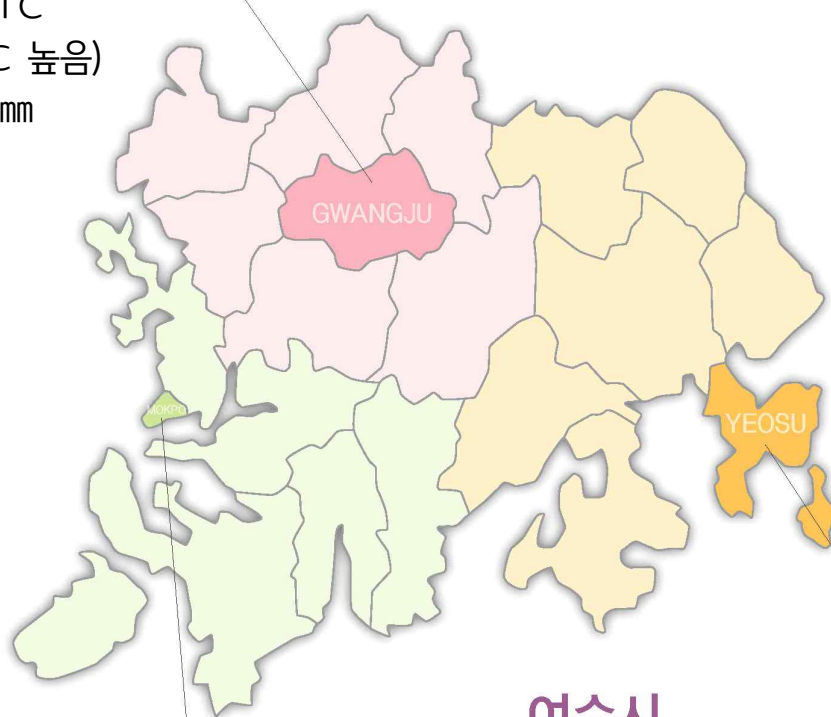
- ▶ 몽골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국경 검역 강화
- ▶ 일본, 2018년 신선 채소 수입 10% 이상 증가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19. 1. 18. 시카고 선물거래소)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39

- ▶ 2019년도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사업 공모
- ▶ 설에는 우리 농식품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 ▶ 청렴한세상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1℃
(평년대비 2.0℃ 높음)
- 최고기온 : 6.3℃
(평년대비 1.6℃ 높음)
- 최저기온 : -2.1℃
(평년대비 1.4℃ 높음)
- 강 수 량 : 1.3mm



목포시

- 평균기온 : 2.5℃
(평년대비 1.8℃ 높음)
- 최고기온 : 5.6℃
(평년대비 같음)
- 최저기온 : -0.6℃
(평년대비 1.4℃ 높음)
- 강 수 량 : 1.3mm

여수시

- 평균기온 : 4.1℃
(평년대비 2.3℃ 높음)
- 최고기온 : 7.7℃
(평년대비 2.0℃ 높음)
- 최저기온 : 0.6℃
(평년대비 2.0℃ 높음)
- 강 수 량 : 1.0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화 훼



- 국화 절화 수확 -

- 스탠다드 국화는 1~2줄이 개화했을 때, 스프레이 국화는 정단부의 꽃이 3~4줄 피었을 때 절화
- 품종이나 재배 조건에 따라 다르나 스탠다드 국화는 7~14일 정도 수명이 지속되며, 스프레이 국화는 약 7일간 지속됨
- 국화는 꽃의 수명보다 오히려 잎의 손상이 더 심각하며 대부분의 경우 황화현상으로 품질이 저하됨
- 저장 온도는 1~2℃, 저장 중 상대습도는 80%가 적당하며 품질 보존을 위해 예냉과 저온수송이 필요함

- 장미 아주심기 -

- 눈접묘는 12~3월, 절접묘는 3~4월에 아주심기 실시
 - 건실한 묘목은 바로 아주심기를 하고 약한 묘는 임시 심기했다가 심어주면 결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
- 묘목을 15~18cm의 비닐포트나 삽목상자에 임시로 심어 눈이 3~4cm 올라오면 아주심기를 함
 - 아주심을 때 이랑은 70~80cm(2줄), 포기사이는 30~40cm정도로 하며 심는 포기 수는 5.5~8주/m²정도 임
 - 아주심은 후 이랑은 멀칭하여 건조와 잡초발생을 방지해줌
 - 뿌리생장을 유도하기 위해 초기 40일간은 물주기 간격을 길게 함



특 용 작 물



- 인삼 예정지 선정 -

- 인삼은 한번 심으면 그 자리에서 4~6년이라는 오랜 기간 자라는 작물이므로 심기 전 예정지의 선정과 관리가 중요함
- 재배 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토양환경정보 시스템인 흙토람(<http://soil.rda.go.kr>)에 접속하여 재배 예정지의 토양 물리성과 화학성을 살펴보고 결정함
- 예정지 선정 후에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반드시 분석을 의뢰하여 토양화학성을 파악하고 시비처방을 받아 예정지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음

- 오미자 동계전정 -

- 오미자는 덩굴성식물이기 때문에 방치하면 무질서하게 엉키게 되므로 전지·전정을 알맞게 하여 충분한 햇볕을 받도록 관리하고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
- 나무에 물이 오르기 전 12월경부터 해동 전 2월 말까지
- 겨울철에 동해를 입은 가지, 병해충에 의해 피해 입은 가지, 30cm이하로 짧고 연약한 가지, 결실가지가 3mm이하로 가는 가지, 햇빛의 투광을 방해하고 가지와 가지가 겹치고 꽃눈이 너무 많이 착생된 가지 등
- 식재 후 3~4년 정도 지난 오미자는 과번무하여 단위 면적당 수량이 떨어지므로 장기간 안정수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를 솎아주어야 하며 3~4년생을 기준으로 굵기 4mm이상, 길이 80cm 이상 눈이 충실한 가지를 남기고 50% 정도를 솎아 줌
- 전정가위는 락스 50% 혼합물에 2~3초간 담가 사용하고, 병든 부위 바깥쪽으로 2~3cm 떨어진 곳을 잘라주며 병든 가지는 분리하여 태우고 오미자 재배포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해줌



축 산



- 소(젖소) -

- 기온이 낮아져 -5°C 일 때 사료섭취량이 약 3~8% 정도 증가하게 되므로 평소 급여량보다 10% 내외 증량 급여해 대사 에너지를 높여주어 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외기온도가 낮을 경우 음수량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며 음수에 알맞은 온도는 $15\sim 24^{\circ}\text{C}$ 가 적당함
- 분만 예정우는 별도의 깨끗한 공간으로 이동하고 깔짚 등을 충분히 깔아서 분만 후 외기온도로 인해 체온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치함
- 분만 2주전부터 저녁 5시 이후 모든 사료를 하루에 1회만 급여하여 주간분만을 유도하고, 송아지가 출산되면 배꼽처리를 해준 다음, 즉시 마른수건으로 체표면의 양수를 닦아주고 헤어드라이기로 털을 말려 체온강하를 막아줌
- 송아지 방에는 보온등을 달아주고 깔짚은 톱밥이나 벧짚을 사용하며, 바닥이 젖어있지 않게 자주 갈아주어 바닥이 항상 건조하게 만들어 주고, 유해가스가 밖으로 빠져 나가도록 적절한 환기를 해줌
- 양질의 조사료나 소화율과 기호성이 좋은 섬유질원을 배합사료와 함께 급여하도록 하고, 눈에 젖은 사료는 소화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잘 마른 사료를 급여
- 혹한기 급수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되었는지 확인하고, 가온급수기인 경우 누전여부를 확인하여 누전에 의한 쇼크에 주의
- 소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및 광견병 예방을 위해서는 야생동물을 차단하고 정기적으로 축사 안팎을 소독하고 혈청검사를 받아 감염된 소가 발견되면 즉시 도태

- 돼 지 -

- 겨울철에는 추위에 대한 스트레스로 어미돼지의 번식능력과 새끼돼지의 면역기능이 크게 떨어져 생산성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분만사의 실내온도를 20~22℃ 정도로 유지하고, 실내온도의 편차를 최대한 감소
- 어미돼지 영양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계절로 겨울철의 번식성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깥 환경온도 변화에 따라 급여량을 조절. 환경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1℃ 내려갈 때마다 권장 사료급여량에서 1%(약 20~25g)씩 늘려 공급
- 신선한 사료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번식돈의 경우 부족한 일조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점등을 통한 조명관리 실시
- 바깥온도 변화에 민감한 포유자돈(태어난 지 3주 이내의 젖을 먹는 새끼돼지)은 보온등을 추가로 설치해 저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돼지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을 파악해 새끼돼지가 섯바람을 직접 받지 않도록 공기유입 통로, 즉 복도를 확보해야 함
- 포유자돈들이 직접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보온 등 아래의 온도는 약 28℃ 전후로 유지하고, 이유 1주일 전에는 23~25℃로 돈방의 온도를 유지 관리
- 겨울철에는 돼지우리바닥이 습하지 않도록 하고 섯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돼지의 체온관리에 주의
- 환기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겨울철에는 돼지우리 내 유해가스가 높아질 수 있으며 습도가 낮아져 돼지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돼지우리 내 환기 불량으로 인하여 돼지의 사료섭취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를 실시

*출처 : 농촌진흥청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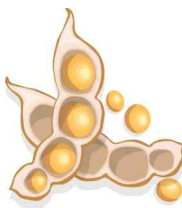
(2019. 1. 21. 기준 / 단위: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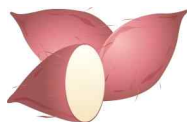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20kg	49,380	49,380	↑	24.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380	39,800	39,133	↑	26.2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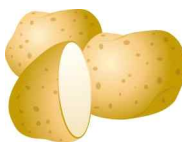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35kg	184,200	184,200	↑	1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5,640	164,000	154,133	↑	19.5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10kg	37,200	36,200	↑	14.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8,880	32,550	24,380	↑	52.6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20kg	38,600	39,000	↓	27.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5,920	53,200	28,727	↑	34.4

채소류

배추(월동)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10kg	4,500	4,600	↓	29.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6,355	5,658	↓	20.5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8kg	5,400	5,500	↓	34.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100	8,225	5,659	↓	4.6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100개	70,000	65,000	↑	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7,667	68,417	74,368	↓	5.9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20개	26,400	24,800	↓	23.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4,200	34,500	33,063	↓	20.2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60kg	1,167,200	1,188,600	↓	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02,000	1,180,000	760,000	↑	53.6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20kg	125,000	125,000	↓	6.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9,000	133,400	133,400	↓	6.3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20kg	29,000	30,800	↑	12.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280	25,750	23,463	↑	23.6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5kg	36,800	36,400	↓	6.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720	39,500	35,927	↑	2.4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10kg	29,600	29,000	↑	33.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0,880	22,200	30,197	↓	2.0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10kg	46,800	35,400	↑	4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0,960	59,100	67,077	↓	30.2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20kg	12,460	12,200	↑	10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040	23,850	21,927	↓	43.2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1kg	1,460	1,600	↓	27.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52	2,000	1,836	↓	20.5

딸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1개	22,000	22,000	↓	15.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8,800	25,950	25,853	↓	14.9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5kg	25,200	25,000	↑	46.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5,520	17,200	18,683	↑	34.9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10kg	45,800	44,800	↑ 24.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0,360	36,750	39,050	↑ 17.3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15kg	53,000	50,000	↑ 110.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7,480	35,400	40,287	↑ 31.6

단감(단감)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2kg	29,800	29,400	↓ 5.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3,680	31,400	25,238	↑ 18.1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100g	8,206	8,006	↓ 0.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223	8,243	7,370	↑ 11.3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1kg	5,891	5,646	↑ 29.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218	4,550	5,263	↑ 11.9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30kg	496,200	496,800	↓ 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6,800	499,000	523,333	↓ 5.2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2kg	13,800	12,000	↑ 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400	13,650	13,527	↑ 2.0

새송이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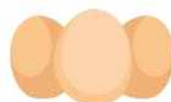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2kg	8,000	8,000	↑ 5.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600	7,600	8,453	↓ 5.4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100g	1,750	1,696	↓ 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78	1,789	1,831	↓ 4.4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30개	4,963	4,977	↓ 6.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55	5,296	5,923	↓ 16.2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	1주일전 (1/14)	전년대비	
1L	2,621	2,621	↑	4.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21	2,518	2,540	↑	3.2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1. 21. 기준 / 단위: 원)

한우(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826	5,654	5,648	↑ 3.0	↑ 3.2
	거세	6,616	6,779	6,383	↓ 2.4	↑ 3.7

한우송아지(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088	3,097	2,950	↓ 0.3	↑ 4.7
	수	3,719	3,534	3,587	↑ 5.2	↑ 3.7

육우(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845	3,711	3,309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3.6	↑ 16.2

젖소송아지(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55	258	11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2	↑ 117.9

돼지(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10	292	34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6.2	↓ 9.6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300	2,012	1,05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4.3	↑ 118.2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758	913	98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7.0	↑ 22.8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666	2,833	2,98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5.9	↑ 10.7

❄️ 김치수출 20% 증가, 김치수출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 ❄️

- 2018년 김치수출이 9,750만 불로 전년 대비 20% 증가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김치수출이 9,750만 불로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출 증가율 20%는 김치 수출실적을 집계한 이후(2006년~) 최대폭이며, 수출액 9,750만 불은 '12년 이후 최고치이다.
- 김치수출액 : ('13) 89백만\$ → ('14) 84백만\$ → ('15) 73백만\$ → ('16) 79백만\$ → ('17) 81백만\$ → ('18) 97백만\$
- 김치 수출국가수도 '17년 63개 국에서 '18년 68개 국가로 늘었으며, 특히 일본수출이 56백만 불(전년대비 23% ↑)로 수출증가를 견인하였다.
- 김치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우리정부의 김치수출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지원정책이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폭염 등으로 인한 김치 원료공급의 불안정성과 경기 침체 등 녹록치 않은 국내외적 여건에서 김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정부는 “김치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도록 김치 품질 및 포장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수출김치 상품화 지원 등 김치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산 상주, 하동, 나주 배 호주 수출 가능!



- 화상병 무발생 지역산임을 증명하는 요건으로 수출 가능 -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호주 농업수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도 상주, 하동, 나주 3개 지역 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04년도부터 호주에 배를 수출해 왔으나, '15년 첫 화상병(*Erwinia amylovora*) 발생으로 호주 수출이 중단되면서 화상병 발생 및 방제상황을 바탕으로 매년 수출 재개 여부를 호주정부와 협의·결정하고 있으며,
- 2018년에도 천안·안성 등의 지역에서 화상병 발생으로, 호주 수출이 전면 중단되었던 상황을 검역본부가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국산 배의 지속적인 호주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검역협상을 통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다.
- 이번 수출 건은 호주정부(농업수자원부)에서 한국산 배 수출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알려왔으며, 올해에도 상주, 하동, 나주 지역 수출단지는 작년과 동일하게 화상병 무발생 지역산임을 증명하는 요건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검역본부 관계자는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단지 뿐 아니라 수출단지가 위치한 상주, 나주, 하동 지역에 대한 화상병 무발생 입증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 이를 위해서는 해당 수출 농가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과 지자체도 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인삼 수출 2억불 달성 머지않아



- 2018년 인삼류 수출, 전년대비 18.5% 증가한 1억 8,774만 불 달성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인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올해에는 사상 최초로 2억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인삼류 수출은 전년대비 30백만 달러 증가한 188백만 달러로, 전체 농식품 수출 품목 중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수출국은 중국(51백만 \$), 일본(33백만 \$), 홍콩(29백만 \$), 미국(24백만 \$)순으로 중화권이 53.6% 차지하였다.
- 유형별로는 홍삼, 백삼, 수삼 등 뿌리삼이 74백만 \$로 39.6%를, 홍삼정, 홍삼조제품 등 제품류가 113백만 \$로 60.4% 차지하였다.
- 국가별로는 중화권 수출의 회복세 속에서, 수출국이 다변화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홍삼 수출이 29.4% 증가하여 뿌리삼 (홍삼, 백삼, 수삼) 증가세를 견인하였고, 홍삼정 등 제품류 수출도 15.4% 증가하였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주력 수출시장인 중화권의 뿌리삼 재고 소진과 추가 수요 확대, 일본·미국·동남아 등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 강화가 인삼 수출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 농식품부 김정욱 유통소비정책관은 “인삼수출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안전성 관리 강화 및 소비·수출 활성화 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포도 재배하며 유기농 6차산업화 선도

- 담양 박일주 명인, 한방영양제 사용...생과즙와인 등 판매 -

- 유기농 포도를 재배하면서 생산은 물론 제조가공, 체험관광 등을 아우르는 유기농업의 6차산업화를 선도하는 농가가 있다.
- 박 명인은 다양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약재를 이용해 직접 제조한 유기농자재가 특별하다. 화학 비료 대신 감초, 계피 등 각종 한약재를 발효해 영양제를 만들어 사용한다. 한방영양제를 물과 함께 주면 효과가 더 좋다. 질 좋은 토양일수록 병해충 피해가 적어진다.
- 또한 땅심을 기르기 위해 녹비작물을 재배하고, 땅의 통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숯가루와 계란 껍질을 사용해 토양 관리를 한다.
- 해충포획기와 독초추출액·황토유황 등을 섞어 만든 유화제로 충해를 방제한다.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가림 시설 하우스를 설치하고, 하우스 비닐 등의 정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1년에 4~5번씩 예초작업을 해 잡초를 제거한다.
- 수확한 포도 중 과실이 크고 모양이 예쁜 것은 포장해 생과로 직거래하거나 학교급식에 납품한다. 작거나 흠집이 난 포도는 선별해 포도즙으로 가공·판매한다. 포도즙 가공 후 생산된 1차 부산물에 생포도를 혼합해 발효·숙성 과정을 거쳐 고서 와인을 만든다. 연간 생산되는 와인은 3천 병정도이며, 750ml 2병 세트에 3만 원으로 직거래된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농기원, 전남 쌀 명품화에 적극 나서

- 자체육성 벼 「새청무」, 전남 대표 품종화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 쌀 명품화의 일환으로 전남도에서 개발한 벼 신품종 새청무를 대표품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따라서 올 해, 새청무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10,000ha에서 200억 원, 2021년에는 70,000ha에서 1,800억 원의 추가 소득 확보가 예상된다.
- 작년 전남농기원에서 품종보호등록한 새청무벼를 지난해 다섯 개 지역 1,100ha에서 실증한 결과, 소비자는 밥맛, RPC는 품질과 도정수율, 농업인은 수량과 재배안정성 면에서 모두 만족하여 선호도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정부보급종의 경우 품종보호등록 4년 후부터 농업인에게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보급종 공급 이전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전남농기원은 새청무 벼에 이품종 혼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 및 소비자 신뢰도 하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보급 초기부터 철저한 품질관리로 종자 338톤을 생산, 전남지역의 농협 RPC 계약재배단지 중심으로 자율교환을 지원하였다.
- 또한 권역별 선도농가 선정, 채종기술을 지원하여 올해는 1,000톤, 내년에는 4,000톤의 종자를 생산하여 고품질 쌀을 유통하는 RPC 위주로 자율교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 새청무 벼를 개발한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신서호 연구사는 농협, 농업인, 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새청무 벼를 통한 전남 쌀 생산성 향상과 명품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식량작물연구소 신서호 연구사 061-330-2523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겨울철 논에 심는 감자, 온도와 환기 관리가 중요

- 하우스 관리, 한겨울엔 보온 이른 봄엔 환기에 집중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하우스 감자를 관리하는 요령을 소개했다.
- 논에 심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하우스 감자는 겨울철 저온과 폭설(1~2월), 환기 불량(3월)에 따른 온도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
- 겨울철 논에 심는 감자는 한창 싹이 트고 자라는 1월께 저온 피해를 입기 쉽다.
- 감자의 싹줄기는 보통 18℃~20℃에서 잘 자란다. 그러나 한파로 하우스 온도가 5℃를 밑도는 1월에는 싹줄기의 생장이 억제되며, 찬 공기에 노출된 싹과 줄기는 어는 피해를 입고 점차 말라 죽는다.
- 3월 들어서는 낮에 하우스 온도가 급격히 오른다. 이때 환기를 하지 않으면 높은 기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
- 하우스 감자는 줄기가 약하게 웃자라는 경우가 많아 제때 환기를 해주지 않으면 온도가 오르면서 윗부분의 잎이 시들어 죽게 된다.
- 수막 재배 지역은 지하수를 이용해 하우스 온도를 유지하고, 수막재배를 하지 않는 지역은 온도가 낮을 때 비닐 터널을 설치해 보온해준다.
- 한파가 예보된 경우, 미리 물대기를 해 하우스의 상대습도를 높이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 폭설이 내리면 하우스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눈이 쌓이지 않게 한다.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은 연동하우스 재배를 피하고 오래된 하우스는 미리 보강한다.
- 이른 봄, 온도가 오를 때 하우스 옆으로 난 창을 열어 내부 온도가 30℃ 이상 오르지 않게 해야 식물체가 웃자라지 않고 습도도 낮아져 감자역병을 예방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구본철 소장은 "겨울철 논에 심는 하우스 감자는 한겨울 보온과 봄철 환기가 중요하다. 1~2월에는 하우스 보온에, 3월에는 환기에 관리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소비자 평가 좋은 ‘우리 딸기’ 보급 확대에 박차

- 16일 전남 담양에서 딸기 새 품종 보급사업 설명회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딸기 '아리향'과 '금실', '메리퀸', '베리스타' 등 새 품종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16일 전남 담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 '아리향'(농촌진흥청 육성)은 단단하고 향이 좋으며, 과일 무게가 25g 이상인 대과 생산 비중이 70퍼센트를 넘는다.
- '금실'(경상남도농업기술원 육성)은 평균 당도(11.2브릭스)가 높고 은은한 복숭아 향이 나며 무게는 20.5그램으로 중대과형 품종이다.
- '메리퀸'(담양군농업기술센터 육성)은 당도(12.1브릭스)가 높고 열매가 단단하고 형태가 좋아 장거리 수송에도 유리하다.
- '베리스타'(경상북도농업기술원 육성)도 단단한 품종이다. 생산성과 유통성이 좋으며 흰가루병, 탄저병, 응애 등 각종 병해충에 강하다.
- 이들은 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하며 단단한 특성으로 농산물 유통 전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수출 유망 품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 11개 시군에서 3.3ha 규모로 실시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은 딸기 새 품종의 종묘 구입, 특성별 재배 기술, 시설하우스 환경과 포장재 개선 등을 지원한다.



▲ '아리향' 품종



▲ '금실' 품종



▲ '메리퀸' 품종



▲ '베리스타' 품종

*출처 : 농촌진흥청

... '팔잎' 속에 숨은 성분 '팥 못지않네'

- 농촌진흥청, 토종 팥 종자·잎 분석...잎 활용 가능성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보유한 한국 토종 팥 유전자원 223종의 종자와 잎을 분석한 결과, 팔잎에 항산화·당뇨 억제 등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 풍부한 것을 확인했다.
- 팥은 아시아에서 주로 생산되며, 비타민 B1 등 영양분이 많이 들어 있어 최근 기능성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 팔잎은 조선시대 식이요법 의학서 「식료찬요(食療纂要)」에서 소갈(당뇨)에 주로 처방됐다. 전라도 지방에서는 예로부터 팔잎을 된장국, 물김치, 쌈 등 다양한 음식으로 만들어 먹었다.
- 이번 연구는 기존에 기능성 물질로 알려진 이소플라본 계열 물질 중 하나인 제니스테인(genistein)¹⁾ 함량과 항당뇨, 미백 효과에 대해 팔잎 비교 평가한 것이다.
- 먼저, 이소플라본 중 항암, 항산화, 골다공증 억제 활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제니스테인의 경우, 종자에는 14.7ug/100g, 잎에는 195.2ug/100g이 들어 있어 약 27배 많았다.
- 또한, 이당류를 분해하는 알파 글루코시다제(α -glucosidase)를 억제하는 항당뇨 능력은 팔잎이 종자보다 2.3배 높았다. 팔잎이 멜라닌을 생성하는 타이로시나아제(Tyrosinase)를 억제하는 능력이 종자보다 약 4.2배 높아 미백 효과도 더 나은 것으로 확인됐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이정로 박사는 "우리나라의 토종 팔잎의 생리활성 관련 연구 결과는 농업 부산물 활용을 통한 식의약소재 개발 등 바이오산업에서 주요 기반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겨울나기 후 맥류 품질·생산성 높이는 비법은?

- 땅 밟아주고 물빠짐 골 정비, 웃거름 주면 효과적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겨울나기 후 맥류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 맥류는 물빠짐이 잘 되지 않으면 서릿발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언 땅이 녹으면서 솟구치는 것인데, 뿌리가 드러나 얼거나 말라 죽을 수 있다.
- 피해가 발생한 곳을 밟아주면 뿌리 발달이 좋아져 쓰러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수량이 3~4% 느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토양에 수분이 많거나 자람이 좋지 않을 때, 마디 사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밟아주기를 피하는 것이 좋다.
- 가뭄이라면 줄뿌림한 곳은 물을 흘려대고, 흩어뿌림한 곳은 헛골에 물을 댄 뒤 바로 빼준다. 규모가 작은 경사지 밭은 자동물뿌리개(스프링클러)로 물을 준다.
- 밀·보리는 겨울나기 후 웃거름을 주면 효과적이다. 북부지방은 3월 상순, 중부지방은 2월 하순~3월 상순, 남부지방은 2월 중순~하순께 준다. 10a당 요소 9~12kg을 주면 알맞다.
- 습해를 심하게 입은 맥류에는 표준량보다 요소를 50% 늘리거나 요소 2%액2)를 10a당 100L 뿌려주면 도움이 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오명규 과장은 "겨울나기 후 맥류가 자라는 시기에 따라 재배 관리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품질과 생산량을 더욱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미세먼지 노출되면 가축도 아파요”

- 호흡기 질병 증가할 수 있어... 사료 섭취량, 체온 확인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가축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질병에 걸리기 쉽다며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 농가에서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가축을 축사 안으로 들여보내고,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한다.
- 한우 상태를 살피는 모습축사 물통에 물 공급이 잘 되고 있는지 매일 확인한다. 소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통도 자주 청소한다.
- 코의 점막이 건조하면 미세먼지가 몸 안에 남아있기 쉽다. 또, 공기 중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더 쉽게 체내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축사를 소독해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한다.
- 다만, 미세먼지를 피하느라 환기를 하지 않으면 축사 안에 암모니아 같은 유해가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 소가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됐다면 몸에서 이물질이 떨어진 뒤 구연산 소독제 등을 분무기로 뿌려 소독해준다. 이후 1~2주일 간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한다.
- 한우와 젖소는 대부분 질병 초기에 사료 먹는 양이 줄고 평소와 달리 움직이기를 싫어한다. 이때는 가까이에서 체온, 호흡, 코와 입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식욕이 없고 침울한 소는 체온을 확인한다. 큰 소는 38~39.5도(℃)는 정상, 39도 이상은 미열, 41도 이상은 고열로 구분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류재규 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환기와 습도 등 축사 내부 관리와 함께 가축의 건강 상태를 관찰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전남농기원, 절화수국 연중생산 기술 현장 평가 성료

- 겨울철 생산으로 농가소득 2배 이상 기대 -

- 전남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도의 주요 수출 화훼작물인 절화수국 연중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농가 현장 평가회를 지난 1월 16일 마치고 본격적으로 기술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 도내 절화수국은 전국 재배면적 23.7ha의 36%인 8.5ha가 재배되고 있으나 생산가능 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정적인 국내·외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중생산과 소비자 선호 화색조절 기술이 요구되어 왔다.
- 이번 평가회에서 선보인 개발기술은 수국의 겨울철 생산을 위해 생장조절제와 온실 환경을 조절하여 개화시킬 수 있는 기술로 그 동안 겨울 수확이 제한되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청색 수국을 생산하기 위해 8회 수작업으로 화색 조절제를 처리하던 작업을 쉽고 간편하게 1회 만으로 청색이 발현되게 하는 기술로 절화와 분화재배에서도 안정적인 청색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이재신 연구사는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우선적으로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교육을 확대하고, 연중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보급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여 도내 수국 재배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원예연구소 이재신 연구사 061-330-2544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월동배추 수급안정 대책 추진

- 농식품부는 월동 배추 공급 증가 등으로 가격이 평년보다 38% 정도 낮게 형성되고 있는 월동배추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
- 월동배추 생산량이 증가(평년 대비 8.9%↑) 336천 톤, 소비 부진 등으로 당분간 가격 약세 지속 전망
- 현재 추진 중인 2만 5천 톤 시장격리를 차질 없이 이행
 - 수매비축 3천 톤 및 채소가격안정제 출하정지 1만 톤 완료
 - 지자체 자체 산지폐기 1만 톤
 - 산지유통인 자율감축 2천 톤
 - 소비촉진 행사 등 추진 중
- 현 시점에서 수급상황을 재점검, 추가 수급안정 대책 마련할 계획
- 2월부터 월동배추 출하가 마무리되는 5월 상순까지 초과 공급 예상량 전량을 대상으로 시장격리 등 가격안정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수급점검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여 보다 가시적인 수급·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할 계획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 추진



- 농식품부는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안정적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전국 4곳에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에 착수
- 추진 배경으로 청년들에게 귀농·귀촌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
- 추진 방향으로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지원, 자녀 양육 가정의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보육 환경 조성, 문화·여가 환경 조성
- 특·광역시를 제외한 155개 시·군(세종시, 제주도 포함) 중 사업 신청 전 사업부지(진입로 포함)를 100% 확보한 시·군에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 4개소(개소당 30호 내외) 조성, 단지 내 공동육아나눔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 시설 각 1개 동 복합·설치
- 지원 대상은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미만이면서 유자녀, 혹은 혼인기간 7년 미만이면서 무자녀) 이거나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1명 이상 자녀 양육 가정
- 사업 기간은 2019년~2020년(2년간), 1년차 40%, 2년차 60% 지원
- 사업 규모는 4개 지구, 지구당 총 사업비 80.2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
- 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 임대료는 단지의 관리·운영을 위한 최소한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
- 농식품부는 상기 내용 등을 담은 ‘청년 농촌보금자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고를 내고, 3월 중 접수를 완료한 후, 4월 말까지 대상 시군을 선정할 계획
- 본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입주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자녀 양육지원 등 종합적 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



- 전남도, 2월 15일까지 관할 농협서 접수...3월부터 지급-

- 전라남도는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희망자를 해당 시군을 통해 2월 15일까지 신청 받아, 3월부터 매월 30만~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업인 월급제 참여를 바라는 농업인은 2월 15일까지 농협과 수매약정 후 관할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다. 벼 양파 마늘 포도 감 배 사과 딸기 등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 면적이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금액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 시군에 농업인 월급제 참여 의향을 사전 조사한 결과, 목포시, 여수시, 담양군, 구례군, 화순군, 함평군 등 6개 시군은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 지역의 농업인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 김종기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가 올해 도 전체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만큼 농업인들이 많이 신청해 안정적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농업인도 월급을 받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 영농의욕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참여하지 않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농업인 월급제 시행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나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23)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동물위생시험소, AI 유입 차단 방역 강화



- 철새 도래지 소하천 집중 소독예찰 검사 실시-

-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영암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AI 항원이 검출되는 등 야생조류에서 계속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철새도래지 소하천 집중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 겨울철 철새가 국내에 돌아오는 지난 10월부터 야생조류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11일 현재 저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는 50건, 전남에서는 3건이 검출됐다.
- 이에 따라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AI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와 방역차량 6대를 동원해 전남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및 인근 소하천, 주변 도로에 대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종오리 농장에 대해 매일 전화 예찰과 주기적 현장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야생조류에서 농장으로의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육용오리 농장에 대해 입식 전부터 출하까지 3단계에 걸쳐 단계별 검사를 실시하고 닭오리 사육농가는 물론 가금도축장, 가축 출하차량 등 모든 AI 위험 요소에 대한 선제적 검사 등 촘촘한 방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 정지영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현재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겨울철에는 철새에 의한 AI 유입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니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가까운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도민들도 철새도래지 및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전라남도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추진



- 농식품부는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己亥)년 설 명절을 앞두고 농업인, 소비자 등 국민 모두가 풍성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14일부터「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 한파 등 특이기상이 없다면, 향후 수급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보이나, 과일·임산물 등 평년 대비 소폭 높은 가격 전망
- 본격 출하 중인 월동배추·무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평년 대비 낮은 시세이며, 당분간 가격 약세가 지속될 전망
- 사과·배는 지난해 빈번한 이상기상 발생에 따른 착과율 저하 및 낙과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평년 대비 높은 시세, 설 수요 대비 공급 여력은 충분하나, 대과는 물량 감소(전년 대비 30%↓)로 가격은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
- 소·돼지고기, 계란은 원활한 출하로 가격 안정세이나, 닭고기는 겨울철 증체지연 등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소비자가격(5,445원)이 평년(5,279원) 대비 소폭 상승(3.1%)한 수준, 전 축종에 걸쳐 전년 동기 대비 사육마릿수가 증가하여 설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
- 임산물은 2018년산 저장물량이 출하되고 있으며, 밤(중·만생종)은 생산량 및 특·상품 증가, 대추는 폭염에 따른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평년 대비 가격 강세, 전반적으로 저장물량이 충분하여 설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격은 평년 대비 다소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
-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홍보(공영홈쇼핑, 설 명절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도 적극 추진
- 성수품 구매 지원을 위해 직거래 장터, 농협·산림조합 직매장 등 장터 개설을 확대(2018년 2,443개소 → 2019년 2,608)하고, 온라인·직거래 매장 등과 연계한 할인행사도 실시하여 장바구니 부담도 완화
-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대책기간(1.21.~2.1.)중 평시 대비 1.4배 확대 공급할 계획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농기원, 농업 현안과제 해결에 박차!



- 쌀 수급안정,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농업 현안문제 적극 대응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2019년 전남 농업 경쟁력 향상과 쌀 수급안정,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보급 136개 시범사업에 3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주요사업으로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20억원을 투자하여 유기재배 시범단지 27개소 조성, 유기재배 기술 8건 개발, 친환경 미생물을 이용한 현장 컨설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1시군 1특화작목 사업은 진도 단호박, 영암 시설꽃고추, 고흥 석류, 영광 모싯잎 등 각 시군별로 차별화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신규 특화작목을 선발·집중 육성하기 위해 28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쌀 소비감소, 공급과잉에 따른 재고량 증가로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는 쌀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벼 대체작목 작부체계 기술 보급, 생산비 절감을 위한 소식재배, 드론 활용 항공직파, 무논점파 농법도 확대 추진한다.
-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형 스마트팜 현장기술지원 거점센터 구축,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조성, 축산 경쟁력 향상 ICT 융복합 기술과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산업곤충 소득 자원화 사업을 확대 보급하는 한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 우리지역에 적합한 신소득 작목 발굴을 위해 아열대작물 실증재배를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 문의 기술보급과 김선표 주무관 061-330-2772

*출처 :전남농업기술원



곡성군, 토란파이 지역명물로 발돋움



- 고급화 전략과 소포장 상품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으로 소비층 확대 기대 -

- 전국 토란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수도권 토란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곡성군이 토란파이를 개발하며 토란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 곡성군에서는 2018년에 토란파이, 토란피자 등 5종의 가공식품을 개발했고, 그 맛이 뛰어나 평가회와 각종 시식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 토란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멜라토닌, 무틴, 칼륨 등이 풍부하여 일반적으로 피로감을 완화시키고 소화촉진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토란 요리법은 토란국 등 한정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소비자들이 토란을 활용하기 어렵게 느끼고 있다. 하지만 토란은 특유의 무색, 무취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재료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 따라서 곡성군은 이러한 토란의 장점을 활용하여 토란파이 등 5종의 가공품을 개발하여 레시피가 한정적이라는 토란의 이미지를 탈바꿈하여 곡성 지역특산물로 발돋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 현재 토란파이는 곡성 여성귀농인 대표업체 수상한영농조합법인 가랑드, 곡성 전통가공식품업체 자매가, 기차마을 디저트카페 곡성다움에서 판매 중이다. 곡성군은 이를 시작으로 토란파이가 곡성 대표 지역특산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장미축제 기간에 토란파이 홍보부스, 토란파이 체험장 등을 열어 홍보와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다.

*출처 : 곡성군



보성군, 딸기 세계가 인정한 맛!



- 싱가포르에서 인기 만점 보성 딸기! -

- 김철우 보성군수가 16일 조성면 조성신선딸기 영농조합법인(대표 정권식)을 찾아 싱가포르로 수출될 보성 딸기 상차식을 갖고 있다.
- 보성군 조성신선딸기 영농조합법인은 앞으로 매주 260kg의 딸기를 싱가포르로 수출한다.
- 또한, 이달 말 주식회사 해울(대표 정충신)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매주 300kg의 딸기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출되는 설향 품종은 산도가 낮고 과즙이 많아 상쾌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싱가포르 수출은 보성 딸기의 해외 시장 선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생산에서 유통까지 꼼꼼히 챙겨 고품질 딸기로 세계가 사랑하는 보성 딸기의 위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보성군



보성군, 소형농기계 공급 확대...올해 512대 지원!



- 농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대 -

- 보성군은 농기계 구매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을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포함하여 2022년까지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 군은 지난해 소형농기계 441대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작년보다 71대가 늘어난 512대(1,025백만 원)를 지원한다. 2022년까지 1,312대(5,248백만 원)를 지원·보급할 계획이다.
-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군이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농기계 구입금액의 50%(최대 200만 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고령농가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 귀농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 특히, 귀농인, 친환경농업인,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을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타 분야의 국·도비 지원 사업을 받거나 최근 3년 이내 농기계 지원 사업 수혜자는 후순위로 선정된다.
- 지원대상 농기계는 대당 70만 원 이상 농기계 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기종으로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농기계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 군 관계자는 “농기계 지원 확대가 향후 농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이어져 농업인 소득 증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보성군



해남군, 해남배추 11,802톤 선제적 산지폐기



- 해남군 1월말까지 폐기 완료, 가격하락 배추 수급안정 -

- 해남군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겨울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배추 산지폐기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 해남군의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2,640ha로 전년보다 5.7% 증가했으며 생육후기 기상여건이 좋고 겨울철 평년기온을 웃도는 날이 많아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 또한 가을배추 풍작으로 미 출하된 잔여량이 많아 겨울배추와 출하시기와 겹치면서 가격 추가 하락이 우려되면서 산지 폐기가 추진되고 있다.
- 이에 따라 해남군에서는 사업비 20억 2,500만 원을 투입해 겨울배추 1만 1,136톤을 긴급 산지폐기할 계획으로 1차로 겨울배추 채소가격생산안정제 사업을 통해 3,906톤(43.4ha)을 16일부터 20일까지 조기 폐기 완료하고, 2차로 군 자체 폐기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 김장 수요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소비처인 요식업체와 대량급식소 등을 중심으로 김치를 수입산으로 대체한 것도 가격하락의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출처 : 해남군



영암군,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 지난해 10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

- 영암군은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등 악성가축질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방역대책을 추진,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특히 AI 차단방역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초소 5개소를 운영하고 자율방재단 6개조, 축협공동방재단과 군 보유 방역차량을 동원하여 겨울철새 등에 의한 관내 AI 발생 위험 최고위기단계인 심각단계에 준한 방역을 진행, 축산농가 차단방역 강화 및 철새도래지인 영암호와 영암천 지류 등에 대한 선제적 차단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 영암군은 특별방역대책 기간중 가금류 79농가에 생석회 차단방역벨트 추진을 위해 생석회 300톤을 살포하였고, 육용오리 28농가 654천수에 대해 2월말까지 휴지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면역증강제, 소독약품 등을 가금농가에 공급해왔다.
- 또한 팀장급 공무원 138명을 가금농가 전담인원으로 지정하여 농가 소독실태 및 임상예찰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생석회 및 면역증강제등을 추가 공급하여 가축질병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 출처 : 영암군



몽골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국경 검역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9년 1월 15일 몽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첫 발생하여 검역탐지견 투입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ASF는 몽골 불강지역에 소재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하였으며,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는 발생지역에서 돼지관련 제품의 반입·반출을 제한하고, ASF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몽골은 구제역 발생국이기 때문에 이미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의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 금번 ASF 발생에 따라 몽골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X-ray 검색활동을 강화하고, 인천·김해공항 취항노선 전편(16편)에 검역탐지견을 배치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였다.
- 또한, 농식품부(검역본부)는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주요 공항만에서 해외여행자 대상 불법휴대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홍보 캠페인은 중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20개성·4개시, 97건 발생)과 아시아 두 번째로 몽골에서도 발생하는 등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한한돈협회 등과 민관합동으로 전국 12개 공·항만에서 일제 홍보 캠페인(1.31)을 시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중국 및 몽골을 포함한 ASF 발생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 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일본, 2018년 신선 채소 수입 10% 이상 증가



- 일본 재무성이 2018년 12월 27일 발표한 11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신선 채소 수입량이 7만932t으로 2017년 같은 기간 대비 11% 늘었다고 한다. 2018년 1월~11월의 수입량 총계는 87만5,795t으로 17% 증가했다. 12월 집계를 포함한다면 2012년 이래 6년 만에 90만t 대가 될 전망이다
- 일본 국내는 가을 날씨가 불안정했던 탓에 채소 수확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 수입 채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 뿌리채소의 수입량 증가가 눈에 띄었다. 양파는 2만6,671t으로 20% 증가해 3개월 연속 전년을 웃돌았다. 일본산 양파는 알이 작아 대체 수요가 활발했다. 수입관계자는 「수입 양파는 일본산에 비해 알이 크고 가공 가능한 부분이 많다.」 라고 전했다.
- 2017년에 일본산 신선 채소의 품귀현상으로 인해 2018년에도 같은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수입량을 늘렸다. 그리고 2018년 토마토, 양파 등의 신선 채소가 주요 산지의 고르지 못해 날씨로 인해 수확량이 줄었으며, 작황이 좋았던 채소는 수확량이 늘고, 생육 기간도 빨라진 덕분에 출하도 예년에 비해 빨랐다.
- 빠른 출하에 따른 반동으로 올해 초까지 공급량의 감소와 가격이 상승이 상승했고, 2018년 일본의 신선 채소 수입량은 2017년 대비 11% 늘어났다. 일부 수입·유통 관계자는 올해 초에도 수입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며, 이 시기를 노려 일본에서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공급이 가능한 신선 채소 수출을 늘린다면 우리 농가의 수익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19. 1. 18. 시카고 선물거래소) ❄️

- 옥수수 선물가격, 기술매수와 환매수의 영향으로 상승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0% 상승했다. 미국은 수출수요를 개선하고 이번주초 가파른 하락세를 회복하기 위해 시카고무역위원회 밀 선물거래소가 2차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미국의 밀 수출 개선에 대한 기대는 가격 지지로 이어졌다. 무역업자들은 밀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가 공급 긴축으로 인해 수출을 억제할 시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6%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목요일 기술 매매와 환매수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무역업자들은 남미 수확지역에서 악천후가 발생로 인해 생산 잠재력을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옥수수 또한 이번주초 급격한 가격하락 이후 세계적인 수입업체들의 신수요 창출로 이어졌고, 특히 한국의 사료업체들이 주 구매자였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5%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기술 매수와 환매수의 영향으로 급등했고, 남미의 콩 수확지역의 악천후가 지속됨에 따라 상승했다. 남미의 악천후로 인해 일부 분석가들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농작물 전망을 하향 조정했으며, 부에노아이레스 곡물 거래소는 폭우로 인해 이번 시즌 아르헨티나의 대두 재배면적을 1,790만ha에서 1,770ha로 하향 조정했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 2019년도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사업 공모 ❄️

- '19. 1. 25.(금)까지 신청하세요 -

-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사업을 '19.1.25.(금)까지 공모합니다.
-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에게 관수·센서·재배·영상·제어 장비 등 노지작물에 적용가능한 ICT 장비를 접목하여 자동 관수, 자동병해충 방제 등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 (2018년) 노지작물 중 채소(무·배추·양파·고추) 품목대상 → (2019년) 채소품목 뿐만 아니라 곡물, 과수 등 노지에서 재배되는 전품목대상확대 추진, (2018년) ICT기술접목을 통한 자동관수 중심으로 현장적용 → (2019년) 자동 관수 외에도 드론을 활용한 자동병해충방제, 외부기상분석을 통한 병해충예측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ICT 적용을 통한 자동 관수, 드론을 활용한 자동 병해충 방제, 외부기상 분석을 통한 병해충 예측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ICT 장비적용,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선정된 모델은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044-201-2420)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설에는 우리 농식품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 우리 농식품의 소비 확대를 위한 공동 캠페인(1.14~2.1)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이하 대한상의)는 설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의 소비 확대를 위한 공동 캠페인(1.14~2.1)을 전개한다
- 설과 추석은 농식품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기업들이 우리 농식품 소비 진작에 적극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작년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뜻을 모았다.
- 농식품부와 대한상의는「우수 농식품 모음집」(이하 모음집)과 공동명의 홍보 포스터 등을 대한상의 회원기업, 지역상의 등에 배포해 설 선물용으로 우리 농식품의 구매 활성화를 유도한다.
- 모음집에는 각종 품평회에서 입상했거나 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 농식품, 식품명인제품 등 318개 품목이 수록됐다.
- 캠페인의 일환으로 17일부터 18일까지 대한상의회관 내에 「우리 농식품 홍보관」을 설치하여 대한상의 직원 및 입주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예약판매도 진행한다.
-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와 농식품부가 함께하는 명절 캠페인을 통해 우리 농식품 소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농업이 상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우수상품 모음집에 수록된 상품들은 홈페이지(www.holidaygif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청렴한세상 - 자신을 비추는 거울(1)



#1. 소동



#2. 회상



#3. 이번만...



주간 219호에 계속 연재됩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85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VOL. 218

